

# 홍성출 교수, 빅데이터로 과당과 비만 무관 밝혀

### 미국 시사주간지 TIME에 두 차례나 연구 성과 소개 새 분석법 개발, 과당과 비만 상관관계 분석해 밝혀

과일에 많이 함유돼 있는 당분 즉 과당(果糖)은 비만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과일 섭취가 비만을 유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쟁이 학자들 사이에 오랜 기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과일의 당이 비만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전북대학교 홍성출 교수의과대(과대) 미생물학교실이 빅데이터 연구법을 통해 밝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연구 성과는 미국 시사주간지인 TIME지에 최근 2차례나 소개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홍 교수는 과일 섭취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빅데이터를 논문과 웹을 통해 수집한 후 이 빅데이터를 과일 성분별 함량에 관한 정보와 통합해서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홍 교수는 빅데이터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애널리틱스 방법을 개발해 이 방법으로 과일 성분과 비만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일의 당과 비만은 서로 무관하며, 신도가 높은 과일 섭취량이 많을수록 비만이 예방되고 살이 빠진다는 사실도 밝혀

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적 의문을 빅데이터 분석법으로 해결한 좋은 예로 평가받았다. 한편, TIME은 전 세계의 대중을 상대로 한 시사주간지로 과학적인 발견을 잘 다루지 않아 노벨상을 받은 과학적 연구도 TIME에서 소개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때문에 TIME에서 두 차례에 걸쳐 특정 논문을 기사화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TIME에서 두 차례나 논문이 소개된 경우는 한국인으로는 홍 교수가 유일하다.

특히 홍 교수의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연구를 세계적 시사주간지에서 2회에 걸쳐 다뤘다는 것은 국내 빅데이터 분석 수준을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김영태기자

##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등굣길 프로젝트

### 고창고, 행복꾸러미 전달하는 행복가득 허그데이 진행

고창고등학교(교장 변우용)는 꿈 테마 명품 행복학교'를 지향해 행복한 학교 실행력 있는 학교'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지난 12일 학부모회와 교직원들이 함께 등굣길에 허그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행복꾸러미를 전달하여 학생들에게 작은 행복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정성들여 만든 간식을 전달해 부모님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후 13일에는 고창군 청소년연계 그물망과 청소년 위원회 주관으로 등굣길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임을 확인하였다. 이화종 고창고 학생회장은 "부모님과 선생님 지역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등교 및 해주시어 고창고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행복꾸러미와 아침 간식에 즐거워했다. 학부모회장은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힘찬 발걸음이 되길 바라고, 큰 꿈을 갖고 도전하는 자세로 일에 재미있게 몰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격려했다. /정은성기자

# 2019학년도 전북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

### 전년도보다 71명↑ 최종합격자 내년 1월 28일·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해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9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13일 전북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를 통해 공고했다.

총 모집인원은 유치원교사 40명, 초등학교 교사 108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7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23명

등 총 178명이며, 전년도보다 71명 증가했다. 원서접수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전북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제1차 시험은 11월 10일, 제2차 시험은 2019년 1월 9일~11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게 된다.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8년

12월 11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2019년 1월 28일에 전북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일람마당·고시/공고)를 통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자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임용시험 시행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일람마당(고시/공고)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 평생교육도시 군산 동네문화카페 신규 운영

군산시는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들이 미래사회 문화시민 역할을 갖춘 평생학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을 신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는 일상생활 주변의 공간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해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군산시민 누구나 희망하는 시간 장소에서 배우고 싶은 문화강좌를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이다.

특히 평생학습장(소상공인 운영 동네상가 등)을 동네 구성구석까지 확대·운영해 개인이 원하는 평생학습문화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고 강사에게는 일자리를, 소상공인에게는 동네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동네문화카페' 사업은 오는 10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일반시민인 경우 5명 이상이 모여 희망강좌 희망장소를 정해 신청하거나, 강사와 사업주는 시민 5명 이상을 모집해 희망강좌, 희망장소를 정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군산시 평생학습관(미풍동 소재) 또는 군산시청 인재영입과(7층)로 방문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또는 군산시평생학습정보방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를 통해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더불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내 안의 숨겨진 영재성을 찾아보자

### 2018 꿈돌움 영재교육한마당 15일 전주대 희망홀에서 개최

전북교육청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2018 꿈돌움 영재교육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인 이 행사는 도내 영재교육원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전북 도내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마다 약 1,000여명의 도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영재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참가프로그램은 크게 ▲영재교실 ▲체험부스로 나뉘며, 영재교실은 총 14개 교실로 구성된 지역 영재

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재수업을 30분으로 압축해 운영한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재교실 프로그램 당 사전신청을 통해 4명 현장접수로 4명 등 참여인원을 8명 이내로 학생 참여 인원을 제한해 진행한다.

또한, 체험부스에서는 총 27개의 활동으로 구성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체험부스 주제와 분야를 작년보다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에 대한 호기심

과 흥미를 넘어서 내 안에 숨어 있는 영재성을 발견하고 진로 탐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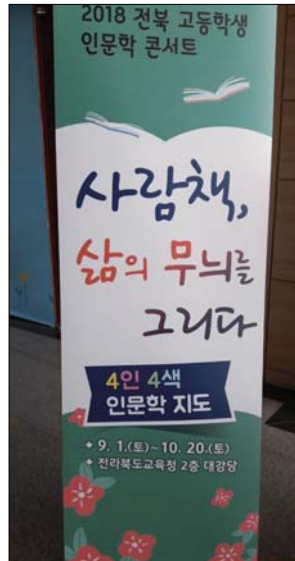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8 꿈돌움 영재교육한마당은 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고 학생들은 숨겨진 영재성을 찾아 꿈을 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 인문학 여행지도... 도교육청, 고등학생 대상 인문학 콘서트 진행 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콘서트가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사람 책 삶의 무늬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올해 인문학 콘서트는 분야별로 권위 있는 작가와 함께 하는 4회의 강연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1강에는 정상의 소설가 김애란이, 8월 2강에는 노동운동가 김진숙이 문학과 노동에 얽힌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오는 15일 3강에서는 '선대인명제연구소'의 선대인소장과 함께 그의 저서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를 통해 저 성장과 기술 박멸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지라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마지막 인문학콘서트는 시평기원과 추석연휴를 지나 오는 10월 20일 한겨레신문 환경전문기자 조홍섭과 합



계 저자가 직접 진화론의 고인인 갈라파고스 군도를 돌아보고 쓴 여행기 '다윈의 섬 갈라파고스'를 통해의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공생에 대한 이야기로 올해의 일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각 회 때마다 강연과 질의 응답, 저자 서명회 등이 이어지며 우수 참가 학생에게는 푸짐한 책 선물이 돌아간다. 회차별로 300명이 넘는 고등학생과 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온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다.

도교육청은 "4회째를 맞는 인문학콘서트로 학생들의 추가 신청이 계속될 정도로 참여율이 높고 수강태도도 좋다. 고등학생들의 인문학 대중화와 평생 독자로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좋은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기자

## 2019학년도 호남권 전문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 개최

2019학년도 수시 호남권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15~16일 전주·전주대학교와 광주동강대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다.

특히 전북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는 전북권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대한 정보와 상담 그리고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박람회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전주·전주대학교, 군장대학교, 서해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북기전대학교 등 전북지역 6개 전문대학이 참여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원서 접수 및 상담 외에 현장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어 경품도 제공된다. /김재훈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